

[가정의달특집3] 영적 제사장, '아버지'

반태효 목사 / 1999

‘제3의 물결’ 저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충격’이라는 책의 ‘파괴될 가족’이라는 장(chapter)에서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말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구약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 (말 4:6)"

말라기는 구원과 회복의 초점을 가정의 회복에 두고 있다. 우주적인 구원의 시작과 모델이 바로 가정의 회복이고, 그 가정의 회복의 중심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세, 종말의 징조는 정부나 경제다. 사회를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을 들여다 보면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다.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가정이 깨어져 있으면 틀림없이 그 사회도 병들어 있다. 청소년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다. 또 가정 문제의 대부분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은 가정의 중심은 부부요,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에도 어린아이를 키워서 만들지 않았다. 먼저 그 가정의 가장인 아담을 준비시킨 후에 이브를 주셨다. 성경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준비, 특별히 영적 지도자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기업인 땅을 약속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버지로서 갖추어야 할 믿음을 준비시킨 후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주셨다. 물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기도 하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더 두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자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은 자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다. 단순히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계승한 자녀만이 진정한 의미의 약속의 자녀인 것이다.

믿음을 전수하는 아버지가 되라

만약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다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믿음에서 실패한 아버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지만 신앙

을 계승시키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자녀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영적 지도자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네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왕상2:1~4)”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서 준비하는 일, 특히 영적 지도자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라 가게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묻겠지만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을 이어가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을 보존하고 이어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형의 기업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무형의 기업으로 그 집안에 내려온 전통과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하며 이어가게 해 주는 것이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지혜를 가르쳐주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이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한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자녀에게 임재하고 이는 것이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판단한다. ‘아버지 됨’은 단순히 생물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다.

예배자로 사는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 중 영적 지도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신앙은 어머니의 책임이 아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영

성으로 가정이 산다.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순간이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자녀들도 예배자로 서 간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 영적 제사장으로 서의 아버지가 해야될 일 중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역할이 없다. 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자녀들에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남겨주고 보장해 주고 갖추어 준다해도 신앙을 남겨 두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이다. 신앙의 전수야말로 자녀들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는 길이다.

말씀으로 훈육하는 아버지

셋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일이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마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1-9)”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만큼 중요한 구절이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경험,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으로는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다. 몸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며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신앙의 장부로 키우는 일이야 마를 아버지로서의 최대의 특권이요 가장 가치있는 일이다.

축복하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은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하는 일이며 축복을 하늘에 쌓는 일이다. 아버지가 가진 축복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세상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때 요셉은 그의 자녀들을 야곱에게 데려가 축복을 받게 한다. 병들고 세약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늙은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손에 바로도 세상 권세로 결코 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권이 있는 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야곱에게 데려가 축복을 받게 했다. 자녀들의 진정한 축복은 그가 가진 권세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하는 일이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이다.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 이 축복과 사명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며,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특권인 것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